

# '인연~ 기억된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

한국전통문화전당, 여섯 번째 기획전시... 허성철 작가 개인전 21일까지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여섯 번째 기획전으로 허성철 작가의 '인연~ 기억된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이 9일부터 21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허성철 작가의 12번째 개인전이기도 한 이번 전시는 작가의 부모님에 관한 흔적을 담은 작품들로 총 25점으로 구성됐다.

사진을 통해 내면을 표현하는 허 작가는 올 1월, 어머니와의 작별을 겪으며 '사람들은 어떻게 부부의 연을 맺고, 그 연을 어떻게 유지하며, 어떻게 마무리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사진으로 표현했다.

또한 사진 작품을 한지에 출력함으로써 한지 특유의 질감과 느낌을 통해 작품에 따뜻한 감성을 담아냈다는 평이다.

20여 년 전 이들의 성장과정을 통해 생의



엄마의 작품

시작을 담은 '가족'이 첫 생활전시였다면, 생을 마감한 분의 흔적을 찾고 나와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한 과정을 담은 이번 전시는

생활전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허 작가는 "일반적으로 '사진은 무엇을 제한하는가'에 방점이 찍히는데, 나는 '사진은 무엇을 창작하는가'로 보고 있다"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기 조심스러웠지만, 아름다운 것만을 찾아 찍는 것보다 붓이나 펜으로 속내를 표현하듯 사진을 창작의 도구로 사용해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허 작가는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을 전공하고, 전북일보 사진 기자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 1994년부터 '전주를 기록하다'는 주제로 다큐멘터리 사진작업을 벌이고, 2000년 '가족'을 시작으로 '이것이 사진인가?', '희망을 품다' 등 개인전을 이어오고 있다. 작품집으로는 전주를 기록하다 1.2, 가족, 엠마오 사람들, 희망을 품다 등이 있다. /김재훈 기자

## 극단 한해랑, 오늘 공포 스릴러 연극 무료 공연

전북도문화관광재단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단체

전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2022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극단 한해랑(대표 유림식)이 9일을 시작으로 올해 총 4번의 기획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들이 접하기 쉬운 도내의 민간 문화시설을 활용한 기획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올해는 총 7개 단체(극단 한해랑, 더 클래식 아트홀, 서해예술극장, 재단법인 청목미술관, 전주로이재즈아트홀, 예술극장 숲, (유)제이와이프)가 선정되었다. 선정 단체는 사업 기간 중 최소 4번의 기획프로그램(전시, 공연 등)을 진행하게 되며, 해당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개방된다.

전주시 신시가지에 위치한 한해랑 아트홀을 거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극단 한해랑은 탄탄한 공연기획 능력을 바탕으로 고정 관객층을 확보해 나가며 도내 생활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극단 한해랑이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첫 번째 순서는 연극 <자취>(작/연출 진중현)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주인공 '미지'의 자취 생활 중 일어나는 일을 그린 공포 스릴러 연극이다.

연극 <자취>는 유료 공연이지만, 도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8월 9일 오후 7



시 30분 공연은 전 좌석(50석) 무료로 진행된다.(선착순, 만 13세 이상 관람 가능)

공연은 한해랑 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으며, 예매 및 연극 관련 문의는 전화(1644-4356)로 하면 된다.

/김경수 기자

## 청년 공예작가 발굴 · 공예품 소개 기획전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 우수 청년작가 특별기획전 21일까지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전주공예품전시관이 전시 1관에서 '우수(秀手) 청년작가 특별 기획전'을 9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3회 차를 맞이한 우수 기획전은 '배어날 수(秀)와 손 수(手)의 의미로 역량 있는 청년 공예작가를 발굴해 공예품을 소개하는 기획전이다.

올해 우수 기획전에 초청된 오석천 작가는 금속을 전공하며 은과 구리를 주재료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 작품 'CUP 시리즈'는 금속 표면에 자연스러운 나뭇결무늬를 표현하는 '모꾸메가네' 목금기법을 활용한 작품이다. 작가는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층층이 쌓아 접합한 후 여러 공정을 통해 다양한 무늬를 생성해 작품에 표현했다.

원광대학교 귀금속 보석공예학과를 졸업한



오석천 eye of typhoon silver, Copper

오 작가는 제22회 익산 한국공예대전을 비롯, 40여 회의 공모전 및 단체전을 이어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이번 우수 기획전은 청년작가의 공예작품을 새롭게 마주

하고 금속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를 기획한 전주공예품전시관 김혜원 팀장은 "지난해에 이어 좋은 전시를 준비한 만큼 많은 관람 바라며, 지속적으로 공예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부득이 현장을 찾지 못할 경우 온라인 전시 영상을 통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유튜브 검색창에 '전주공예품전시관' 또는 '우수청년작가'를 검색해 시청하면 된다.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시 1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일이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공예문화산업팀(063-281-1610)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 순창군 복흥작은도서관, 판소리 · 풍물 공연 · 강좌 진행

국가무형문화재 강산제 이수자 윤상호 명창 · 설장구 명인 흥진기 풍물 굿

복흥작은도서관에서 오는 12일 오후 1시 복흥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한여름 농사를 지쳤을 농민들의 피로를 씻을 수 있는 판소리와 풍물 공연과 강좌가 펼쳐진다.

복흥은 서원제의 시조인 강산 박유전의 생가 터가 있는 곳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윤상호 명창은 강산 박유전 명창에 대한 이야기와 판소리 유파와 갈래, 강산제의 판소리 특징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또 직접 판소리를 들어보며 그 특징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복흥 추림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흥진기 설장구 명인은 지역의 풍물 굿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설장구 공연도 직접 펼칠 예정이다. 그리고 흥진기 명인의 딸인 흥유경 양(정음여중3학년)의 가야금 공연과 성가정 어린이집 아이들의 '강산제 춘향가 중 사랑가'도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마을의 아이들이 박유전의 판소리를 배우고 전수하는 생생한 현장 모습도 볼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다. '강산제 춘향가 중 사랑가' 공연은 유희경 국악인의 지도로 꾸며진다. 유희경 국악인은 이날 공연의 사회도 맡았다.

윤상호 명창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강산제 심청가 이수자이며 서원제보성소리축제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대령상을 수상한



윤상호 명창

흥진기 명인

바 있다. 중앙대 대학원에서 국악을 전공하고 현재 정음시립국악원에서 판소리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립남도국악원, 광주 빛고을전수관 등에서 강산제 심청가를 공연한 이력이 있다.

흥진기 장구 명인은 전주교대 대학원에서 국악교육을 전공하고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국악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순창국악원, 수제천보존회에서 농악과 사물놀이 강사 및 연주자로 활약하고 있으며, 농림부 주관 설장구 부문 명인부 종합대상(농림부 장관상)과 무용대회 명인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익산시, 음악으로 교감하는 '태교 뮤지컬 음악회'

17일 'Family 팝페라 태교 뮤지컬' · 양육법 특강 등 진행

익산시가 임산부와 영유아 가족들에게 몸과 마음에 힐링을 가져다 줄 태교 뮤지컬 음악회를 개최한다.

'Family 팝페라 태교 뮤지컬'이 17일 오후 7

시 익산 스포츠문화예술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뮤지컬은 여성트리오 그룹인 '라스텔라'가 참여해 디즈니 OST, 엄마가 딸에게, 댄싱퀸 등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

한 노래들로 진행한다.

또한 음악회에서는 '행복한 부모, 존중받는 아이'라는 주제로 자녀와의 소통대화법과 양육법 특강과 여름방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토키타 연주 등을 마련했다.

참가 신청은 이달 14일 오후 5시까지 익산시 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사이트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신청자 100명을 모집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